

	<h1>보도자료</h1>	<b>배포즉시 보도</b>
		<b>국악방송, 전통문화콘텐츠 개발에 공동참여</b>
	<b>한류정보센터</b>	이메일 : hallyu@gugakfm.co.kr 전화 : 02-300-998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12)	<a href="http://www.gugakfm.co.kr/">http://www.gugakfm.co.kr/</a>	



팔공산 부인사에서 100여년을 이어온  
선덕여왕의 예지

제 28 회 **선덕여왕**

# 송모재



**2014. 4.14 [월]**  
 3월보름  
 부인사 송모재  
 11:00 송모재  
 13:00 국악제

**특별전시**  
 <관인명민 선덕여왕 복식전> 삼광루

**특별공연**  
 김영임명창(회심곡)공연, 유리에술단 외다수출연

주최·주관  대한불교조계종 **부인사**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총림 동화사

 대구광역시

 문화의 중심 서울 동구  대구광역시청

 국악방송

## 국악방송, '선덕여왕 송모재'로 전통문화콘텐츠 개발에 공동참여

- 오는 14일, 대구 부인사 송모전에서 '불교식' 봉행
- '육법공양', '범패' 등 전통불교의식 결합, 복원
- 김영임 명창 외 출연, '산사의 국악공연' 개최

4월14일 월요일, 오전11시, 한국역사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을 기리는 <선덕여왕 송모재>가 국악방송의 후원으로 열린다. 대구시 팔공산 부인사에서 열리는 이 선덕여왕 재일(齋日)행사는 불교사찰에서 신라왕에 제사를 올리는 유일한 경우로, 학자들은 100여년이 넘는 만큼 민속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송모재>는 불가의 의식인 재(齋)로 행사명을 바꾸고, 특히,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범패(주요무형문화재 50호)스님들을 초청, 거행하게 되며, 송모전 주련의 칠언시 4구를 노래로 만든 <송모전 주련송>과, 서정주의 대표시<선덕여왕찬>을 국악합창단이 함께 부르는 순서도 마련한다.

<송모재> 당일, 선덕여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특별전시가 부인사 삼광루에 마련되는데, 한복명장 유홍숙선생이 복원, 제작하여 부인사에 기증한 선덕여왕 어의(御衣)가 신하들의 복식과 머리모양, 왕관까지 재현, 전시되며, <삼국사기>에서 선덕여왕의 성품을 표현한 관.인.명.민(寬.仁.明.敏)을 주제로 작은 전시회가 열려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오후2시부터 송모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는 '산사의 국악공연'이 국악인 이근찬씨의 진행으로 펼쳐진다. 김영임 명창이 <회심곡>, 경기민요, 정선아리랑을 열창하며, 이유라 명창이 제자들과 함께 창부타령 등의 민요와 <심청전>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 등을 들려준다.

부인사는 신라왕실의 원찰로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한때 80여동이 넘는 전각이 있었던 거대 사찰로, 고려시대 <초조대장경>을 백여년간 봉안하다 몽고군 2차침입 때의 병화로 소실된 법보사찰로 잘 알려져 있다.

'전통문화복원'에 인식을 같이하는 국악방송의 <선덕여왕 송모재> 참여는 대구지역의 전통문화를 문화콘텐츠화하는 또다른 시도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인터넷TV생방송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행사를 실시간 중계할 뿐 아니라, 전량녹화로 자료화할 계획이다.

※문의 : 국악방송 한류정보센터(02)300-9980. donsari@gmail.com

**[첨부파일]**

- [1] <송모재> 행사순서
- [2] <송모재>와 <송모전>에 대한 이해
- [3] 선덕여왕
- [4] 재(齋). 육법공양. 범패 해설
- [5] <선덕여왕찬>, <송모전주련송>

**[첨부1]**

**[프로그램] 사회 : 이근찬(국악방송 MC)**

**1부 - 송모재 11:00**

- 명종(鳴鐘)
- 삼귀의
- 육법공양(향.등.차.과일.꽃.쌀)
- 발원문 봉독
- 범패(주요무형문화재50호) 시연
- 법어 / 축사 / 인사
- 정근. 헌화
- 음성공양(선덕여왕찬. 송모전주련송) 발표
- 반야심경 봉독
- 사홍서원

[점심식사]

**2부 기념공연 13:00**

**김영임**

- 회심곡
- 정선아리랑
- 경기민요(뱃노래)
- 경기민요(자진뱃노래)

**유라예술단**

- 판소리<심청전>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
- 탑돌이/부모은중경
- 국악가요(가야지. 님이여 님이시여. 날마다 좋은날)
- 한오백년/창부타령/해뜨는 나라

## [첨부2]

# 부인사 선덕여왕 송모전(崇慕殿)과 송모재(齋)의 이해

## [연혁]

### 1986년 10월

- 부인사 회주스님이신 성타스님께서 부인사 경내 선덕묘(善德廟)에서 신무동 주민들이 선덕여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음을 발견함.
- 참여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시작된 설화 등을 수집하여, 70여 년간 지내왔음을 확인함.
- 신라왕실의 원찰임을 입증하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 계승하기로 발원.

### 1989년 10월

- 부인사 첫 불사로 송모전(전각명 작명 동국대 장충식교수) 낙성, 선덕묘를 옮겨옴
- 선덕은 ‘선덕바라문’을 가리키는 말로써, 신라백성에게는 미륵과 같은 존재임을 인식, 부처님을 모시는 ‘전(殿)’으로 명명.
- 영정(대구 대도극장 作畫師 그림)을 유허(전 경북대 교수)의 영정으로 교체함.
- 원찰내의 제례(茶禮)임을 감안, 불공의 예법으로 제사를 모심.

### 1991년 3월

- 성타스님은 지역사회와 불자들의 발원을 받아들여 송모재를 집전할 단체를 결성토록 독려하여, 주무단체인 <송모회>가 결성됨.
- 이후 지난해까지, 부인사 경내의 송모전에서 매년 송모제가 부인사의 적극적 후원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행정당국(대구시, 동구청)도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의 가치를 인정, 미력하나마 지원하고 있음.
- 단, 불교의식으로서의 가치를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며, 지켜져야 할 불교의식이 실종되어 정체성을 조금도 보여주지 못했음.
- 지역전문가들은 송모전-송모재 복원,봉행은 성타스님의 원력이 지켜온 불교문화로 인정.

## [참고사항]

- 선덕여왕을 기리는 불교의식이 100여 년동안 사찰에서 봉행된 부분은 그 유례가 없으며, 민속학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음.
- 특히, 사찰에서 신라왕의 제사를 올려온 예는 전국에서 부인사가 유일함.
- 송모재는 불교의식이며, 송모재(崇慕齋)임에도 송모제(祭)로 이뤄지는 건 큰 오류임.
- 송모제가 음력 3월 보름에 열리는 것은 편의적인 설정이었으며, <삼국유사>에 전하는 선덕여왕의 기일은 음력 1월8일임. 앞으로 재일(齋日)을 교정해야 할 필요도 있음.
- 불교제례의 문화적 가치를 감안, 지금까지 유교식 제례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오류를 수정하여, 불교적 제례로 원상 복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팔관회, 연등회 등 고려시대 불교의식은 복원되었으나, 신라시대의 불교제례는 복원된 바 없지만, 불교학계 소장학자들의 노력으로 현재 복원 중에 있으며, 이의 복원은 송모재가 가장 훌륭한 복원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첨부3]

#### **선덕여왕(善德女王) ( ? - 647)**

신라의 제27대 여왕(재위: 632년 - 647년).

성은 김(金), 휘는 덕만(德曼)이다. 진평왕과 마야부인(摩耶夫人)의 장녀이다.

진평왕이 아들이 없이 죽자 화백회의에서 그녀를 신라의 새 왕으로 추대되어 성조황고(聖祖皇姑)라는 호를 올리고 인평(仁平)이라는 연호를 썼다.

즉위한 해인 632년에 관원들을 전국 곳곳에 파견하여 백성들을 진휼(賑恤)하게 하고, 633년에는 조세를 면제해주는 등 일련의 시책으로 혼란스러웠던 민심을 수습하였다.

고구려와 백제의 신라에 대한 침공이 빈번히 발생하기 시작해 나라의 존립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막는 한편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동맹을 맺어 외교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공격적인 외교술을 펼쳤다.

더불어 민생의 안정에 주력하여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도록 하는 구휼정책을 활발히 추진하였으며, 첨성대를 건립하여 농사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또한 불교 또한 널리 장려하여 신라인들을 정신적으로 단결시켜 삼국 통일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분황사, 영묘사 등 절을 많이 건립하고 불경을 연구시켜 불교의 일대 부흥을 가져왔다. 특히 선덕여왕은 웅대한 호국의 의지가 담긴 거대한 황룡사 9층 석탑을 세웠다. 황룡사 9층 석탑은 높이 80m의 거대한 탑으로 이를 모두 9층으로 한 뜻은 이웃의 9적을 물리쳐서 복속시키기 위해 나라 이름을 새겨넣은 것이다.

647년 상대등 비담 등 진골 귀족들이 여왕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구실로 반란을 일으키자 김춘추와 김유신으로 하여금 진압하게 하였다.

선덕여왕은 평소에 자신을 도리천, 곧 낭산 남쪽에 장사지내라고 하였는데 훗날 왕릉 아래에 사천왕사가 세워지게 되었다. 불교에서는 인간 세상의 한가운데에 수미산이 있고 그 위에 6천이 있는데 중턱에는 사천왕천, 꼭대기에는 도리천이 있다고 한다. 신라가 곧 불국토라는 관념에 비추어보면 선덕여왕은 서거 후 도리천에 승천하여 곧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 [첨부4]

### 재(齋)

재(齋)는 원래 일정한 날에 계율을 지키거나 신(身)·구(口)·의(意) 삼업(三業)을 깨끗하게 하여 악업을 짓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도 재라고 하고 거기서 나아가 성대하게 불공을 올리는 것도 재라고 하였다. 재의 의미가 원래 신·구·의를 정제하는 것과 모든 영혼을 천도하고 산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밝히는 일이므로 주로 천도재의 형태로 시행되기도 한다.

재라는 모임은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로 공덕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신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오늘날 한국불교에도 목적과 시기에 따라 관음재, 수륙재, 영산재, 사십구재, 생전예수재, 우란분재 등 여러 가지 재의 의식이 전해지고 있다.

### 육법공양(六法供養)

공양(供養)은 공급하여 자양한다는 뜻으로, 육법공양은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가지 공양물을 말한다. 쌀, 향, 꽃, 과일, 차, 촛불, 이 여섯가지를 공양하는 의미는 육바라밀을 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므로,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것은 법계에 공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진리를 받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향香공양의 향은 해탈향(解脫香)으로 희생을 상징
- 등燈공양의 등은 반야등(般若燈)으로 지혜를 상징
- 차茶공양은 차는 감로차(甘露茶)로 만족과 청량함을 상징
- 과일果공양의 과일(果)은 보리과(菩提果)로 깨달음을 상징
- 꽃花공양의 꽃은 만행화(萬行花)로 수행성취를 상징
- 쌀米공양의 쌀(米)은 선열미(禪悅米)로 보시 바라밀을 상징

### 범패(梵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이수자 및 전수자 스님 출연.

범패란 불가에서 재(齋)를 지낼 때 사용하는 의식용 음악으로서 범음범패(梵音梵唄)의 대표격이다. 범음은 부처님의 음성,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한다. 범패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노래로서, 내용상 부처님의 가르침과 역대 조사(祖師), 고승들의 말씀에 곡을 붙인 것으로 구분되며, 어산(魚山) 또는 인도(引導)소리라고도 불린다. 범패는 세속의 가무(歌舞)와 달리 복잡한 외부의 인연을 끊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어, 범패를 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성불할 수 있도록 돕는 수행도인 것이다.

우리나라 불교의 의식음악으로서 가곡(歌曲),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의 하나인 범패는 궁중제례악을 제외한 아악(雅樂)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 리듬이 길게 끌어가며 굴

곡을 이루고 깊고 그윽하며 맑고 부드러우며, 세간의 소리가자 울동하면서도 속되지 않고  
성스러운 품위와 아름다움이 범패에 있다. 범패와 작법을 ‘어산(魚山)’이라 하고 범패의 대  
가인 장부(丈夫)를 어장(魚丈)이라 한다.

범패의 기원은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는 장면에서 불·보살은 물론 삼천대천세계의 선신들  
이 붓다가야의 보리도량에 운집하여 성불을 찬탄한 데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  
는데, 우리나라 범패의 기원은, 진감국사대공탑비문(眞鑑國師大空塔碑文.경남 하동 쌍계사  
소재)에 의하면 신라 헌덕왕 때의 진감국사(眞鑑國師 慧昭: 774-850)가 당(唐)나라에서 범  
패를 배우고 여러 제자에게 범패를 가르친 데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삼국유사』 월명사도  
솔가(月明師兜率歌) 조에 의하면 월명사가 “향가만 알 뿐 범패는 알지 못한다”는 구절로 미  
루어 진감국사 이전에 이미 범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첨부5]

## 선덕여왕찬(善德女王讚) 서정주 시 / 채치성 곡

신라 산야 자욱한 꽃밭에 크낙한 꽃 한송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별 나비 닿을 수 없는 곳 으젓한 꽃 한송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구원의 손 뻗치시고, 사랑도 보내시고,  
존엄의 팔찌도 벗으시고, 언제나 빙그레 웃으시고.  
하직하실 날도, 묻히실 하늘도, 유리처럼 환하게 아시던 님  
오, 천삼백년은 오히려 가까웁네  
선덕여왕 같은 이가 이 나라에 살았음은 얼마나 큰 기쁨인가  
오, 선덕여왕 같은 이가 이 나라에 살았음은 얼마나 큰 기쁨인가

## 숭모전주련송(崇慕殿柱聯頌) 채치성 곡

선덕용비계귀시 (善德龍飛鷄貴時) 구층보탑진구이 (九層寶塔鎮九夷)  
일통삼국정난후 (一統三國定亂後) 도리천궁일월지 (仞利天宮日月遲)  
신라를 다스릴 때 황룡사 구층탑으로 아홉개 오랑캐나라 이기려 하셨도다  
삼국통일 이루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도리천 궁궐에 세월은 끝없도다